

# “여수,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 중심지였다”

##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모색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서 제기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가 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의 중심항구 도시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여수가 아시아를 넘어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는 29일 “지난 27일 ‘2013 한·중·일 국제학술대회’가 해상 실크로드와 여수의 역사적 관계 조명이란 주제로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충석 여수시장, 조원일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장, 환경호 전남대 부총장 등 한·중·일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제8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에 앞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여수가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써 우수한 해양문화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학술적 근거를 찾고 이를 통해 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충석 시장은 이날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여수 개최가 여수가 과거 해상실크로드의 중심항구였으며, 향후 세계 무역항으로써 성장할 수 있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역시 “신석기시대 패총과 문헌 기록에 의하면 여수는 남해안의 중심 항구로 크게 번성했으며, 고려·조선시대 조운로(세곡 운반선 조운

이 거문도에서 다량 발견된 점, 왜구를 방어하는 수군사령부가 설치된 점 등은 여수가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요충지였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白承鎬) 중국 절강대 교수는 “고대 한·중·일 해상항로와 여수라는 주제 발표에서 ‘여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선사시대부터 일본과 교류를 해왔으며, 기원전 4~5세기경에는 한반도 연안을 따라 멀리 요동반도와도 직접 교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김병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역시 “신석기시대 패총과 문헌 기록에 의하면 여수는 남해안의 중심 항구로 크게 번성했으며, 고려·조선시대 조운로(세곡 운반선 조운



여수시는 지난 27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2013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해상 실크로드와 여수의 역사적 관계를 조명했다.

선의 항로)의 거점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터키 카지안페에서 열린 ‘제7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에서 김충석 시장이 해상실크로드 도시 간 협력과 교류의

야젠다를 제안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의 중심지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 등의 장점을 부각시켜 전 카지안페에서 열린 ‘제7회 실크로드 시장단 포럼’에서 김충석 시장이 해상실크로드 도시 간 협력과 교류의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문묘용 祭酒 조난사 재조명 추진

(제주)

### 보성향교, 기념관 설립도 나서

보성향교가 일제강점기 ‘밀주’로 규정돼 탄압받았던 문묘용 ‘제주’(祭酒)의 조난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유림과 함께 일제강점기 유림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 설립에도 나설 방침이다.

29일 보성향교(전교 채길삼)에 따르면 지난 1921년 일제는 보성향교 문묘용 제주를 밀주로 규정, 봉인 압류했으며, 유림이 거세게 항의하자 70여명의 유림을 붙잡아 주세령 위반 혐의로 온갖 고문과 협박을 자행한 바 있다. 이후 주동자로 인정한 박남현 참관 외 9명을 장흥검사국이 구속하자 이에 반발한 청년 유림이 보성향교 교정에서 ‘전국유림결기대회’를 열어 주세령 반대, 일본인 관리 탄핵 총궐기를 촉구하는 ‘경고발도항교격문’을 발표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구속자를 석방했으며, 박남현 등은 전국을 돌며 주세령 폐지 운동을 전개, 전국 향교에서는 관례대로 제주를 빚어 사용하게 됐다.

이 같은 문묘용 제주를 둘러싼 일



제와 유림들의 대립 과정에서의 항일 운동사가 잊혀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림 및 유족(대표 박해철)들이 지난 1991년 ‘유림 항일 사적비(사진)’를 건립했다.

또 지난 2007년 7월 상규관 주관으로 ‘보성향교 문묘 제주 조난사건 항일 의거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큰 성과 없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장인 채길삼 보성향교 전교가 전국 5000여명의 유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존처 등 부처에 청원을 내기도 했다.

보성향교 관계자는 “이 사업은 역사를 잊지 않고 항일독립정신과 울곧은 선비정신을 후세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영호남 대학생 이순신 길 걷기

지난 26일 구례군 산동면 이순신 산성에서 영·호남 대학생 원정대 140명이 남도이순신길 걷기 발대식을 갖고 3일간 백의준군로, 조선수군재건로 등 이순신 산성에서 관음포까지 걸었다. 이번 행사는 전라남도도와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남도이순신길 역사교실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신청 3개 과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선정

전남도는 29일 “산업부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D 사업)’ 공모에서 전남테크노파크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신청한 3개 과제가 모두 선정돼 지역 기업의 유망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3개 과제는 전남테크노파크가 (주)디엘티, 케이에스랩(주), (주)한국고벨과 각각 공동으로 기업의 우수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과제다. 전국적으로는 15개 과제가 선정됐다. (주)디엘티는 신축성 맞춤형

이음관(Expansion Joint) 제작업체로 세계 100억 달러 시장에서 10% 이상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케이에스랩(주)는 내충격성이 우수한 안경렌즈 조성물 제조기술을 확보해 중국 등에 수출을 추진 중이다.

크레인 제작 전문기업 (주)한국고벨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2만 개 정부 과제 중 우수 과제 100선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지역 유망기업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전북

### 전주 육군 35사단, 임실로 이전

#### 10월부터 연말까지

전주에 있는 육군 35사단이 10월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전주시는 29일 “2006년부터 부대 이전을 위해 시작한 군 시설과 도로 공사 등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10월부터 35사단 이전을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지역은 임실군 임실을 대곡리·정월리 등 7.35km(223만평)이다. 부대이전 사업은 전주 35사단 부지를 전주시가 양도 받는 대신에 임실 이전부지에 병영시설, 주거·복지시설, 교육훈련장을 지어 국방부에 기

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전주시는 35사단에 이어 인근 항공대대까지 이전하면 전주 북부권의 군부대 이전사업이 모두 마무리돼 기존 부지를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으로 만드는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임실군 일부 주민이 “전주시와 국방부가 수차례에 걸쳐 항공대대를 임실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항공대대가 탄약창 인근으로 이전하면 자칫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 장류원료 계약재배 호응

고추·콩 등 시중가보다 높아  
참여농가 늘어 매출액 급증

순창군이 추진하는 장류원료 계약재배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으면서 농가와 장류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순창군 장류원료 계약재배 사업단(단장 권오정)에 따르면 올해 민속마을 전통장류 생산업체, (주)대상, (주)순창장류와 계약재배 물량은 고추 71t과 콩 334t, 찹쌀 7t, 겉보리 2t 등이며, 400여 농가가 참여한다.

매입가격은 올해산 고추 600g 당 6000원~8200원선으로, 오는 26일부터 농협 구매할 예정이며, 가격은 장류콩 1kg당 5400원, 찹쌀 40kg에 10만원, 겉보리 40kg에 4만25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계약재배로 인한 수매 매출액은 2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20억 원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고추의 경우 수량이 많고 품질이 좋아 시중 가격이 낮아졌으나, 계약재배는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원하는 농가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 장류업체 측에서도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장류원료 계약재배는 청정지역인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고추와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장류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부인이 사극,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은 모 방송국 사극 촬영 장면.

## 부안, 전통사극 메카로 각광

### 올 드라마·영화 10개 촬영... 10년간 72개 작품 찍어

국내를 대표하는 오픈 영상문화특구인 부안에 전통사극 로케이션이 잇따르고 있다.

전통사극에는 부안이 담겨야 한다는 인식이 영화·드라마업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영상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29일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지역 내에 위치한 영상테마파크, 석불산영상랜드, 전라좌수영 세트장 등 영상세트장에서 촬영·제작된 드라마와 영화는 10개 작품에 달한다.

작품별 드라마는 SBS ‘대풍수’와 ‘장유정’, KBS ‘천명’, MBC ‘구가의서’, ‘불의여신장미’, 그리고 ‘기황후’

의 촬영이 지난 추석연휴기간 진행됐다. 또 M NET 드라마 ‘문스타’에 부안이 담겼다.

영화는 지난 11일 개봉 이래 누적 관객 수가 700만명을 넘어섬에 초고속 흥행 필라이를 펼치고 있는 ‘관상’과 조만간 개봉될 예정인 ‘명량·회오리바다’가 부안의 영상테마파크 등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도 영화 ‘광해’, ‘나는 왕이로소이다’ 등 총 9개 작품에 대한 촬영과 제작이 진행되는 등 200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72개 작품 촬영이 부안에서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KBS ‘태양인 이제마’의 촬영을 시작으로 2005년 4개, 2006년 4개, 2007년 8개,

2008년 11개, 2009년 7개, 2010년 9개, 2011년 9개 등이다.

사극 이외에도 ‘해안선’, ‘위도’, ‘다른 나라에서’, ‘봄봄봄’ 등 영화는 물론 ‘프라하의 연인’ 등 TV 드라마에도 부안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부안이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각종 로케이션이 잇따르는 이유는 촬영하기 좋은 다양한 소재와 자연자원, 촬영세트장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분석하고 있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오픈 영상문화특구인 부안에서 촬영한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리에 방영되거나 방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상문화 육성은 물론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yy0681@

## 단신

### 부안, 올 친환경농산물 생산 52억 투입

부안군은 29일 “올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13개 사업에 국비 23억4600만원 등 총 52억1400만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16억1900만원을 들여 토양개량제 1만2155t을 지원했으며 1만9049t의 유기질비료 지원에도 15억6700만원을 투입했다.

또는 1만ha의 면적에 7억원을 들여 벼 육묘상토를 지원하고 왕겨숯 1만8972포와 왕겨액 475통을 지원하기도 했다.

부안지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저농약 554ha, 무농약 393ha, 유기 203ha 등 총 1150ha다. /부안=정재용기자 jyy0681@

### 정읍 구절초 축제 10월 5~13일 열려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일원에서 제8회 정읍 구절초 축제가 내달 5일 개막된다. ‘술술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축제는 13일까지 9일 동안 이어지며 다채로운 이벤트와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9일 동안 매일 2회씩 ‘구절초 꽃밭 음악회’가 열리고,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술술 구절초와 산책로를 따라 은은한 야간조명이 연출된다. 이와 함께 ‘구절초 족욕체험’, ‘자전거타기 시골풍경유람’, ‘농교 영화촬영 명소탐방’ 등 풍성한 체험이벤트가 운영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시,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남원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취득한 농지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 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 작물, 실제 경작인 등을 조사한다. 시는 취득 후 8년 이 경과되지 않은 대상으로 하고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남원=백성민기자 bs8787@

### 고창, 벼 공공비축용 6649t 수매

고창군은 29일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올해 관내에서 생산된 벼 중 공공비축용으로 6649t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이 중 산물벼 수매 물량은 841t뿐이고 건조벼는 5808t이다. 산물벼는 다음달 9일까지 해당지역 미곡처리장(RPC)에서, 건조벼는 지정된 정부양

곡보관창고에서 연말까지 수매한다. 매입 품종은 ‘황금누리’와 ‘새누리’, ‘신동진’ 3가지가 해당된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우선지급금은 40kg을 기준으로 건조벼의 경우 특등급은 5만6820원, 1등급은 5만5000원, 2등급은 5만2560원, 3등급은 4만6780원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